

## 노인의 여가복지시설 이용의 저해요인: 지역의 유형화 차이를 중심으로

홍 석 호  
(서울대학교)

김 순 은\*  
(서울대학교)

여가참여의 위계모형에 근거하여 지역유형별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의 저해요인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4년 전국거주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인구비례할당 표집 방법과 면대면 면접 방법으로 횡단연구 서베이를 수행하여 1,060명으로부터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그리고 농어촌지역별로 거주하는 노인들의 여가복지시설 이용의 저해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개인 내의 저해요인(보행 어려움, 우울감, 수입의 감소), 대인 간의 저해요인(이웃과의 교류감소, 자녀 문제, 친구 상실), 구조적 저해요인(주변의 범죄/ 안전, 먼 거리의 시설, 불편한 시설), 그리고 통제요인(나이, 성별, 결혼형태, 학력, 월소득)이 단계적으로 위계선형회귀 모형에 입력되었다. 지역 유형별로 노인의 여가복지시설 이용 현황과 저해 요인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발견되었다. 대도시지역 거주 노인들은 거리가 가까울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월소득이 적을수록 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할 확률이 높았다. 도농복합지역 거주 노인들은 시설물이 편리할수록, 여성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할 확률이 높았다. 농어촌지역 거주 노인들은 우울감이 높을수록, 여성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여가복지시설 이용할 확률이 높았다. 노인 여가복지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 용어: 노인, 여가복지시설, 지역 유형, 여가참여 위계모형

이 연구는 2016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NRF-2016-S1A3A-2925399)을 받아 수행되었다.

\* 교신저자: 김순은, 서울대학교(sekim0313@snu.ac.kr)

■ 투고일: 2016.7.31    ■ 수정일: 2016.9.19    ■ 게재확정일: 2016.9.22

## I. 서론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지난 몇십 년간 급격히 증가하여 2015년 662만 4천 명으로 집계되어 전체인구의 13.1%를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라면 2060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40%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통계청, 2015).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의 심각성을 나타내기 위해 통계청과 각종 미디어에서 쏟아 내는 노인 관련 사회지표들(예컨대, 고령화율, 노령화지수, 기대여명, 고령자 가구 비중 등)은 사람들을 더는 놀라게 하지 못한다. 노인 인구수가 절대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의 증가와 더불어 사회에서 노인들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어 그들의 생활의 질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의 모색에 사회와 국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의 생활의 질과 삶의 만족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이 존재한다. 그중 높은 노인 빈곤율과 낮은 노인복지지출은 낮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와 결합하여 노인 자살률 세계 1위를 오래도록 지켜오는 불명예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김숙향, 황경란, 2016; 이소정, 2010). 또한, 세계노인관측지수(Global AgeWatch Index)에서 발표한 노인행복지수 세계 60위라는 하위권의 성적표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생활의 질과 삶의 만족도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심각한 수준임을 나타내고 있다(HelpAge International, 2015). 이 밖에도, 국내 연구 자료를 통해서 우리나라 노인의 삶의 질과 생활 만족도는 높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소정, 2010; 장명숙, 박경숙, 2012).

노년기의 효과적인 여가 시간 활용은 노인의 삶의 만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된다(박기범, 하형주, 신영균, 2009; 박경순, 박영란, 염유식, 2015). 노인의 여가활동은 노회속도를 낮추고, 체력저하를 예방하여 신체건강을 증진시키며, 정신적으로도 고독감과 소외감 등을 극복하게 하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원영신, 1997; 허준수, 2002; Lennartsson & Silverstein, 2001). 퇴직 이후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하나의 현상으로, 혹은 극단적으로 노년기의 생활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여가생활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그동안 계속 있었다(허준수, 2002). 고령자 통계(2015)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의 2014년 하루 평균 여가생활 시간은 7시간 16분인 것으로 나타났고, 나이가 많을수록 하루 중 평균 여가생활 시간은 증가하였다. 하지만, 노인들은 여가 시간의 절반 이상인 4시간 4분을 TV시청 등의 미디어 시청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미디어 시청 외의 여가 활동들 즉, 교제활동(51분), 종교·문화·스포츠 활동(1시간

11분), 그리고 기타 여가활동(47분)에 사용하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여가활동 장소로는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그리고 노인 휴양소 등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있으며, 이 밖에도 집, 문화회관, 구민회관, 주민센터, 그리고 공원 및 산 등이 보고되었다(박기범, 하형주, 신영균, 2009; Jeong, Oh, Lee, Sohn, Park, & Lee, 2012; Kim et al., 2015). 통계청(2015)에 따르면, 노인들의 여가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들 중 경로당이 전체의 97.4%(63,960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경로당으로 쏠림 현상은 노인의 다양하고 자유로운 여가활동을 제약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수의 부족 문제와 도시와 농촌 간의 지역적 편차의 문제는 선행연구를 통해 지적되어 왔다(강주희, 윤순덕, 2007). 그리고 이러한 시설 수의 부족과 지역편차 문제는 여가복지 서비스의 제공뿐만 아니라,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지역적 편차의 문제는 저조한 시설 이용의 문제와 결부되어 나타난다. 2014년 노인실태조사보고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에 따르면, 노인 인구의 약 26%만이 경로당을 이용하며, 노인복지관 이용률은 이보다도 훨씬 낮은 약 9%로 보고되었다. 더욱이 도시지역으로 분류되는 읍과 면에 거주하는 노인의 경로당 이용률(17.2%)이 농어촌지역으로 분류되는 읍과 면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이용률(54.3%)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게 나타난 반면, 노인복지관의 경우 도시지역에 비하여 농어촌 지역에서 시설 인프라가 부족하여 도시 노인의 시설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 모두에서 노인들은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향후에 더 많이 이용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이러한 선행 연구의 결과는 지역 유형에 따른 노인들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차이를 살펴보는 동시에 노인들이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필요성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노인복지 정책이 노인의 건강과 의료, 그리고 생활 소득 보장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 오면서 우리나라 노인의 여가활동에 대한 홍보와 지원이 부족하였다(박기범, 하형주, 신영균, 2009). 이는 앞서 언급하였던 것과 같이 노인의 여가활동 실태와 노인의 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노인들의 이용 현황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또한, 노인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선행연구도 노인들의 여가활동 빈도, 종류나 실태를 조사하는 연구들

에 국한되거나(허준수, 2002) 여가활동 참여와 노인의 삶의 질, 생활만족도, 그리고 성공적 노후와의 관련성에 대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이선자, 2002; 황수영, 서성용, 김성혁, 2010; 장명숙, 박경숙, 2012; 심미경, 박정모, 2015). 최근에 노인의 여가활동 혹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전국단위에서 지역 유형별 차이를 조사하거나, 이론에 근거하여 다차원적 수준에서의 이용 저해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전국단위의 연구설계를 통해 지역 유형별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명확히 살펴보는 일은 중요하며, 지역 특성별 거주 노인들의 여가복지시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저해 요인들을 파악하는 본 연구는 충족되지 못한 여가활동에 대한 노인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노인의 여가활동과 지리적 특성

노인의 여가활동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몇 가지의 특징들로 요약되곤 한다. 우선, 노인들은 타 연령층에 비하여 많은 여가 시간을 갖게 되며 그들의 여가 활동은 일상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신체적 혹은 정신적 여가활동이 중요하게 강조된다는 면에서 젊은 층의 여가활동과 구분된다(박미석, 이유리, 2003; 안종철, 2014). 또한, 고령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노인의 여가시간은 꾸준히 증가했고 노인의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부족으로 노인들은 TV 시청과 같은 수동적 형태의 여가활동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해 오고 있다(보건사회연구원, 2014). 하지만, 노인 여가 활동은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예컨대, 성격, 연령, 교육 정도, 건강상태, 경제적 수준)과 생활습관, 그리고 삶의 목적 등에 따라 다양하다(박근수, 2011). 그리고, 이러한 개인적 차원의 특징에 근거하여 노인의 여가활동을 다양하게 유형화하는 연구들이 있었다. 예컨대, Hooyman과 Kiyak(1996)은 적극적, 수동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여가활동으로, 김태현(2007)은 단독충실형, 우인교류형, 가족충실형, 사회참여형, 그리고 독서형 여가활동으로

로, 박근수(2011)은 일중심형, 가사중심형, 그리고 레저중심형 여가활동으로, 그리고, 황남희(2014)는 여가활동부족형, 정적놀이형, 운동참여형, 자연친화형, 그리고 친목교류형 여가활동으로 유형을 나누어 설명하였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서 지역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의 여가활동을 이해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예컨대, 시, 군, 구 단위의 고령화 수준의 큰 차이로 빚어지는 향후 지역별 노인 인구규모의 차이, 지역의 면적과 교통수단의 차이, 그리고 지역 산업구조와 경제의 격차 등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의 여가 생활에 차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윤경, 정경희, 오영희, 염주희, 김향아, 2012). 도시지역은 밀집지역에 노인 인구수는 많으나 노인 인구의 동질성이 낮으며, 여가활동 자원이 다양하고 풍부하다. 반면에, 농어촌지역은 인구 밀도가 낮고, 노인 인구의 동질성이 높고, 비공식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여가복지시설이 다양하지 않다. 또한, 도농복합지역은 인구의 구성은 도시적 특성을 가지며 노인 인구가 밀집해 있지만, 여가복지시설의 질적 양적 수준은 농어촌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게 보고되고 있다(강주희, 윤순덕, 2007). 선행연구들에서, 도시지역은 농촌지역의 노인들에 비하여 여가 시간이 많으며 여가활동도 다양하다고 보고하고 있으며(윤인지, 김상운, 2005), 농어촌 지역에서는 친목도모와 같은 여가활동에 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종천, 2011). 이와 더불어, 지역별로 필요에 따라 서로 다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유형이 강조된다. 예컨대, 도시지역에서는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그리고 여가문화에 초점을 두고 운영되는 여러 민간의 여가복지 인프라가 존재하는 반면, 농어촌 지역에서는 경로당이 유일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역할을 수행하는 문제점이 드러난다(강홍구, 2000 ; 박기범, 하형주, 신영균, 2009; 이인수, 2003 ; 오현숙, 2003). 도농복합지역인 진해시의 경우 노인들은 양과 질적인 시설의 부족함을 문제로 지적했다(김희년, 정미숙, 2004). 하지만, 노인의 여가활동이 지역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비교 조사하는 연구는 단편적이고 제한적으로 수행되어 왔고 본 연구를 통해 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그리고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 간의 여가복지활동의 차이를 폭넓고 체계적으로 비교하고자 한다.

## 2.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과 영향요인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인여가복지시설은 각종 상담, 건강의 증진, 교양,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복지(회)관,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정(경로당), 교양교육과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노인교실, 그리고 노인휴양소로 구분된다(이환범, 이수창, 임중환, 2005).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프로그램 및 시설의 질적 측면은 아직 열악하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지역의 특성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설립의 지역 격차는 완화되지 않고 있다(이석훈, 송강영, 김재운, 2008). 이로 인해 노인여가시설의 이용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먼저, 보편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경우 도시지역 노인은 20% 미만만 이용하는 반면에, 농촌지역 노인은 약 65%가 이용하고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이윤경, 2013). 이뿐만 아니라, 높은 연령일수록, 낮은 교육수준일수록, 낮은 소득수준일수록, 동거가족 수가 적을수록, 우울감이 낮을수록, 인지 기능이 높을수록, 사회적 연결망의 밀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직업을 가진 노인일수록 경로당 이용이 높게 나타났다(박경순, 박영란, 염유식, 2015; 이윤경, 2013). 노인복지관과 노인교실의 이용률이 더 높은 도시 지역에서는 주로 여성이, 건강상태가 보통 이상인 노인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리고 고졸이상의 학력자인 경우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이 높았다(이경재, 남궁선, 2011).

또한 선행연구들에서 서로 다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에 서로 다른 요인이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 경로당은 시설영역에 대한 만족감이 높을수록, 노인교실과 노인복지관은 프로그램 영역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가 높을수록 시설이용이 활발하였다(이환범, 이수창, 임중환, 2005). 하지만, 박기범, 하형주, 그리고 신영균(2009)의 연구에서는 경로당과 노인교실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각각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위의 연구와 일치하였으나, 노인복지관의 이용에 있어서는 시설요인이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로당의 다양한 프로그램 이용에서 소득이 낮고 나이가 많을수록 경로식당 이용이 높게 나타났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한글프로그램에 대한 참여가 높았고, 낮은 교육수준과 소득, 신체적 쇠약함과 정신적 외로움 등은 전반적으로 노인들을 여가복지시설 이용에 소극적이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그리고, 노인들은 경제

력과 교육수준의 향상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이용보다 다양한 사회단체참여활동(경제활동, 학술활동, 취미활동, 건강증진활동, 자원봉사활동)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희년, 정미숙, 2004). 노인의 개인인구학적 변인 외에도, 여가에 대한 인식 및 여가 정보의 부족과 시설에 대한 접근성 또한 여가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희년, 정미숙, 2004). 결과적으로, 선행연구들은 사회계층에 따라 노인들이 여가복지시설 이용에 다른 인식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내포하며, 개인의 사회계층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등 구조적 요소도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한경혜, 윤성은,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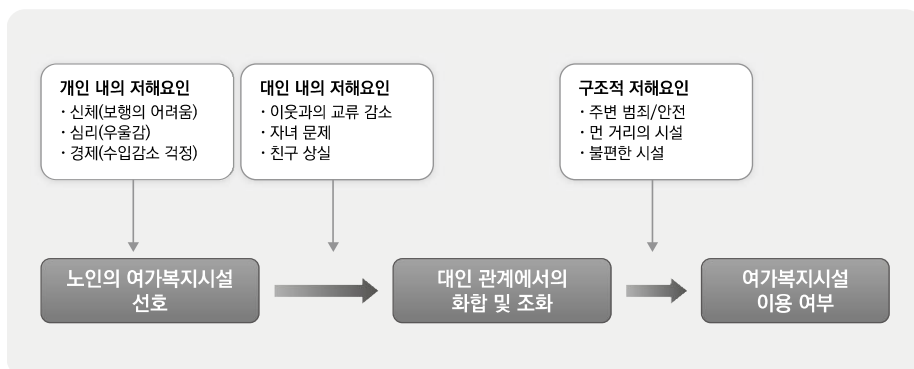
### 3. 여가 참여 위계 모형의 적용

본 연구에서는 지역 특성별 여가활동의 저해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여가참여의 위계모형(Jackson, Crawford, & Godbey, 1993)을 사용하였다. 여가참여의 위계모형은 여러 단계에 걸쳐 개발되어 왔다. Crawford와 Godbey(1987)은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공공 여가서비스의 참여를 연구하기 위해 경제적 자원, 기후, 가족 생활주기 등의 구조적인 저해요인에 처음으로 주목하였다. 개인이 가지는 특정한 여가활동에 대한 선호가 바로 구조적 요인과 결합하여 여가활동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Crawford 등(1991)은 개인 내적인 저해요인이 더 복잡하게 특정여가활동 선호도에 작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개인 내적 요인(예컨대, 기분과 같은 심리상태, 자신감, 주관적 적절성에 대한 평가 등)을 세분화하여 그의 다음 연구에 적용한다. 동시에 그의 연구에서는 대인 간의 상호작용 관계도 여가활동 참여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연구를 통해 밝혀낸다. 즉, 같은 취미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지, 특정 여가 참여 장소에 편안하게 함께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주변인들의 여가활동 지지를 받는지 등도 검토하게 된다. 앞선 과정들은 그동안 분절화된 상태에서 연구되었다. 하지만, Jackson 등(1993)은 여가참여를 위한 개인 내적, 대인 간의, 그리고 구조적 수준의 저해요인들이 실제 여가참여에 있어서 위계적인 순서를 가지고 개인 내면에서 협상을 하게 된다고 확신하고, 비로소 세 가지 수준(intrapersonal, interpersonal, and structural)의 저해요인들을 통합시키게 된다. 따라서, 완성된 모델은 개인 내적 저해요인으로 개인의 의지와 태도에 따라 여가의 선호를 최우선적으로 잠정 결정하게 되고, 이는 다음 단계에서 대인

간의 저해요인으로 개인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파트너의 존재와 주변의 지지 등을 통해 여가활동을 참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타진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구조적 저해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여가활동을 최종 결정 혹은 지속유지 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가 참여의 위계모형에 근거하여, [그림 1]에서와 같이 한국사회에서 노인의 여가복지시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개인 내의/대인 간/구조적 저해요인에 해당하는 적절한 변수를 모형에 대입·적용시켜 보았다. 개인 내의 저해요인으로 신체적(보행의 어려움), 심리 정서적(우울감), 그리고 경제적(수입감소 걱정) 어려움을 적용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우리 사회에서 노인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겪는 공통되고 일반적인 현상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선행연구의 이론적 모델에 근거하여, 한국 노인들이 대인 간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문제들 중 여가활동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세 가지 변인을 적용하였다. 이웃과의 교류감소는 대인 간의 소통과 상호작용의 영향을 판단하기에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자녀와의 갈등 문제는 노인이 여가활동 참여를 위한 가정 내의 지지체계로 볼 수 있으며, 친구의 상실 등은 여가복지시설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파트너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구조적 저해요인으로는 주변 범죄와 안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먼 거리의 시설이용에 따른 어려움과 여가복지시설의 불편함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접근성과 편리성의 요인들도 모델에 적용하였다.

그림 1. 노인 여가복지시설 이용 저해요인의 위계모형(Jackson, Crawford, & Godbey, 1993)





#### 4. 연구 문제 및 연구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의 지역 유형별 저해요인을 밝히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 다음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와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 연구문제 1. 지역 유형별로 거주하는 노인들의 여가복지시설 이용과 시설 이용의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 특성이 다른가?

- 연구가설1-1: 지역 유형별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연구가설1-2: 지역 유형별로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의 저해요인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나. 연구문제 2. 어떠한 저해요인이 각 지역 유형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여가복지 시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가설2-1: 대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여가복지시설 이용에 영향을 주는 특별한 개인 내/대인 간/구조적 저해요인이 존재할 것이다.
- 연구가설 2-2: 도농복합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여가복지시설 이용에 영향을 주는 특별한 개인 내/대인 간/구조적 저해요인이 존재할 것이다.
- 연구가설 2-3: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여가복지시설 이용에 영향을 주는 특별한 개인 내/대인 간/구조적 저해요인이 존재할 것이다.

### III. 연구 방법

####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한국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노인 문제와 그 대응

방안으로서의 사회자본의 역할을 조사한 횡단연구 서베이에 기초하고 있다(김순은, 이민홍, 2015; 이민홍, 고정은, 2015). 전국거주 만 65세 이상 성인 남녀를 모집단으로 성별, 지역, 연령을 고려하여 인구비례할당 표집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범위 3.01%에서 총 표본 수 1,060명으로부터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2014년 6월과 7월에 걸쳐 훈련된 조사자들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개별면접을 수행하였으며 모든 대상자는 연구 취지와 익명성 보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한다는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조사의 제안 단계에서 서울대학교 생명연구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의승인을 받았다.

## 2. 연구대상자

전국 232개 지자체 중 인구비례할당 표집 방법에 따라 무작위로 선정된 32개 지자체의 1,060명으로부터 받은 응답 자료를 분석하였다. 전체 조사 대상자 중 여성이 약 60%를 차지했으며, 평균나이는 약 74세 정도였고, 연령대는 만 65세부터 74세 사이의 응답자가 전체의 약 57%였으며, 경기도와 서울 거주자가 전체의 30% 정도를 차지하였다. 지역 특성에 따라 다른 지역사회 유형 구분에서 동일하게 사용되는 동지역만 있는 시군을 도시지역, 동과 함께 읍, 그리고 면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시군을 도농복합지역, 그리고 읍과 면지역만 있는 군을 농어촌지역으로 구분하였다(강주희, 윤순덕, 2007). 도시지역 거주 노인은 572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약 54%, 도농복합지역(248명)과 농어촌지역(240명)은 약 23%로 비슷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9% 정도, 월소득 100만 원 미만자가 65% 정도, 결혼생활 유지자가 64% 정도, 그리고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 소지자가 63% 정도로 나타났다.

## 3. 연구도구

### 가. 종속변수: 여가복지시설 이용

노인의 여가복지시설 이용에 관하여 본 연구는 '귀하의 여가복지시설(경로당, 복지관 등) 이용 여부는?'이라는 설문 문항을 이용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노인들은 자신들의

여가복지시설 이용 빈도에 잘 부합하는 내용을 다섯 가지의 응답 문항(1=거의 이용하지 않음, 2=어르신을 위한 잔치 등 행사 때에만 이용함, 3=주 1회~2회 이용함, 4=주 3회~4회 이용함, 5=주 5회 이상 이용함) 중 선택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여가복지시설 이용에 관한 종속변수는 5점 척도의 연속형 변수로서 응답자의 점수가 높을수록 여가복지시설의 이용빈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 나. 독립변수: 저해요인

개인 내의 저해요인(intrapersonal constraints): 노인의 여가복지시설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차원의 저해요인으로 본 연구는 신체적 건강문제, 심리정서 문제, 그리고 경제적 문제들로부터 각 문항을 선별하였다. 신체적 건강문제와 관련하여 ①이동 및 보행의 어려움을, 심리 정서 문제에서는 ②우울감과 같은 기분 문제, 그리고 경제적 문제로는 ③수입 감소의 문제를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응답 문항들은 4점 척도로 (1=전혀 경험하지 않는다, 2=거의 경험하지 않는다, 3=가끔 경험한다, 4=자주 경험한다)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 내적 차원의 저해요인들에 더 강하게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대인 간의 저해요인(interpersonal constraints): 노인의 여가복지시설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간의 저해요인으로 본 연구는 설문 참여 노인들의 주변 인간관계망에서의 문제들과 관련된 세 문항을 선별하였다. ①이웃과의 교류감소, ②자녀 문제, 그리고 ③친구 상실 등의 저해 요인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개인 내의 저해요인에 대한 응답 방식과 마찬가지로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 간의 저해요인에 더 강하게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구조적 저해요인(structural constraints): 노인의 여가복지시설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 구조적 혹은 환경적인 저해요인으로 세 문항(①주변의 범죄 및 안전, ②면 거리의 시설 이용, 그리고 ③불편한 건축시설물 이용)을 선별하였다. ①주변의 범죄 및 안전에 대한 질문 문항은 4점 척도(1=전혀 경험하지 않는다, 2=거의 경험하지 않는다, 3=가끔 경험한다, 4=자주 경험한다)로 구성되었으나, ②면 거리의 시설 이용과 ③불편한 건축시설물 이용에 대한 질문 문항을 5점 척도(1=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2=동의하지 않는다, 3=보통이다, 4=동의한다, 5=매우 동의한다)로 구성되었다. 세 문항 모두

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구조적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 다. 통제변수

본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학적 특성들(지역 유형별, 나이, 성별, 동거가족, 결혼형태, 학력, 월소득, 그리고 건강인식도) 중 지역 유형화에 따른 노인 여가복지시설 이용의 저해요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이, 성별, 결혼형태, 학력, 그리고 월소득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나이는 대상자로부터 받은 응답 값을 그대로 연속형 변수로 사용하였고, 성별은 '0=남성, 1=여성'으로 더미처리하였다. 결혼형태는 원래의 응답 값을 리코딩하여 '0=결혼, 1=이혼/사별/미혼/기타'로 더미처리하였다. 학력은 '0=무학/초등학교/중등학교 중퇴 및 졸업, 1=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 이상'으로 리코딩하였으며, 월소득은 원 설문지에서 응답받은 비율척도 자체로 사용하였다.

### 4. 자료분석방법

전체 조사 대상자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을 수행하였고, 연구 목적에 맞추어 지역 유형에 따라 각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도 함께 수행하였다. 연속형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고 세 지역 간의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서 일원배치분산분석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범주형 변수의 세 지역 간 분포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교차분석 기법을 사용하였다. 주요 독립변수들의 기술통계와 함께 정규성 검토를 위해 왜도/첨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종속변수인 여가복지시설 이용과 주요 독립변수들 간의 이변량 상관관계 분석으로 Pearson의 상관관계수 값을 산출하였다.

핵심 연구 분석 방법인 선형회귀분석기법의 적용에 앞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잔차의 정규성, 선형성, 등분산성, 및 상호 독립성, 그리고 회귀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이상점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였다(성태제, 2007, p.266). 이상의 기본가정들이 충족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론적 모델인 여가활동 참여 저해요인의 위계모형(Jackson, Crawford & Godbey, 1993)에 근거하여 지역 유형별로 대상자들을 분류하고 각 회귀모형에 변수들을 네 단계로 나누어 입력하는 위계선형회귀분석기법을 적용하였

다. 첫 단계에서 개인 내의 저해요인들을 회귀모형에 입력하였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대인 간의 저해요인을,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구조적 저해요인들을 추가적으로 입력하였다. 저해요인들이 종속변수와의 관련성 정도가 통제변수의 영향하에서도 변함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 통제변수들을 회귀모형에 추가 입력하였다. 적은 숫자의 결측 자료를 처리하기 위해 Listwise deletion 방법이 사용되었으며 본 연구분석을 위해서 SPSS 21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지역 유형별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지역 유형별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차이는 <표 1>과 같다. 동거가족( $p=.008$ ), 학력( $p=.001$ ), 월소득( $p<.001$ ), 건강인식도( $p<.001$ ), 여가복지시설 이용( $p<.001$ )에서 지역 유형별 차이가 발견되었다.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부부만 한 집에 거주하는 비중(60%)이 높았고,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에서는 부부뿐만 아니라 기타 가족(자녀, 손주 등)들과 한집에 거주하는 비중(30%)이 높게 나타났다. 도시지역 거주 노인들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소지자의 비중(21%)이 높게 나타났고, 농어촌 거주 노인들은 무학자의 비중(25%)이 높았다. 도시지역 거주 노인들은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 이상이라고 응답했던 비중(41%)이 높았고, 도농복합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월평균 소득 '2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이라고 답한 비중(35%)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이라고 답한 비중(42%)이 높았다. 건강인식도에서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나쁨 혹은 매우 나쁨'이라고 대답했던 비중(52%)이 높게 나타났고, 도농복합지역에서는 보통이라고 대답했던 비중(43%)이 높게 나타났다. 나이, 성별, 그리고 결혼형태는 세 지역 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가설1-1과 관련하여 여가복지 시설이용이 지역 유형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p<.001$ )가 있음을 <표 1>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거의 이용 없음'이라고 대답한 비중은 도농복합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34%)이 다른 두 지역 유형에 거주하는

노인들(도시: 29%, 농어촌: 27%)의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다. ‘행사 때에만 이용’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13%)이 다른 두 지역(도시: 6%, 도농복합: 4%)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주 1~2회’ (도시: 16% > 농어촌: 14% > 도농복합: 9%) 혹은 ‘주 3~4회’ (도시: 15% > 농어촌: 13% > 도농복합: 9%)라고 대답한 비중은 세 지역 유형별로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졌다. 하지만, ‘주 5회 이상’이라고 대답한 비중은 도농복합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44%)이 다른 두 지역 유형(도시: 34%, 농어촌: 33%)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표 1. 지역 유형별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060명)				
변인		Total (N=1060)	도시지역 (n=572)	도농 복합지역 (n=248)	농어촌지역 (n=240)	p-value
나이, M(SD)		74.19(6.54)	73.78(6.43)	74.65(6.48)	74.70(6.81)	
성별, n(%)	남성	429(40.5)	237(41.4)	98(39.5)	94(39.2)	
	여성	631(59.5)	335(58.6)	150(60.5)	146(60.8)	
동거가족**, n(%)	혼자	236(22.3)	126(22.0)	60(24.2)	50(20.8)	.008
	부부만	549(51.8)	274(47.9)	132(53.2)	143(59.6)	
	부부+다른 가족	275(25.9)	172(30.1)	56(22.6)	47(19.6)	
결혼형태, n(%)	결혼	676(63.8)	366(64.0)	154(62.1)	156(65.0)	
	이혼, 사별, 비혼 등	384(36.2)	206(36.0)	94(37.9)	84(35.0)	
학력**, n(%)	무학	202(19.1)	101(17.7)	42(16.9)	59(24.6)	.001
	초등학교	466(44.0)	226(39.5)	122(49.2)	118(49.2)	
	중등학교	213(20.1)	126(22.0)	49(19.8)	38(15.8)	
	고등학교	126(11.9)	83(14.5)	26(10.5)	17(7.1)	
	전문대 이상	53(5.0)	36(6.3)	9(3.6)	8(3.3)	
월소득***, n(%)	199,999원 이하	81(7.7)	27(4.8)	28(11.3)	26(10.8)	<.001
	200,000~499,999원	273(26.0)	131(23.3)	87(35.1)	55(22.9)	
	500,000~999,999원	334(31.8)	172(30.6)	62(25.0)	100(41.7)	
	1,000,000~1,499,999원	163(15.5)	97(17.2)	32(12.9)	34(14.2)	
	1,500,000~1,999,999원	61(5.8)	45(8.0)	12(4.8)	4(1.7)	
	2,000,000~2,999,999원	84(8.0)	51(9.1)	17(6.9)	16(6.7)	
	3,000,000원 이상	55(5.2)	40(7.1)	10(4.0)	5(2.1)	

변인		Total (N=1060)	도시지역 (n=572)	도농 복합지역 (n=248)	농어촌지역 (n=240)	p-value
건강인식도***, n(%)	매우 나쁨	99(9.3)	61(10.7)	16(6.5)	22(9.2)	<.001
	나쁨	342(32.3)	175(30.6)	65(26.2)	102(42.5)	
	보통	381(35.9)	192(33.6)	107(43.1)	82(34.2)	
	좋음	208(19.6)	126(22.0)	52(21.0)	30(12.5)	
	매우 좋음	30(2.8)	18(3.1)	8(3.2)	4(1.7)	
여가복지 시설이용***, n(%)	거의 이용 않음	314(29.6)	165(28.8)	85(34.3)	64(26.7)	<.001
행사 때에만 이용	74(7.0)	33(5.8)	9(3.6)	32(13.3)		
주 1~2회	148(14.0)	92(16.1)	23(9.3)	33(13.8)		
주 3~4회	140(13.2)	86(15.0)	23(9.3)	31(12.9)		
주 5회 이상	384(36.2)	196(34.3)	108(43.5)	108(33.3)		

\*  $p < .05$ , \*\*  $p < .01$ , \*\*\*  $p < .001$

## 2. 지역 유형별 노인 여가복지시설 이용 저해 요인들의 기술 통계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노인 여가복지시설 이용의 저해 요인에 관한 인식에 있어서 지역 유형별 특성은 <표 2>와 같다. 보행의 어려움과 심리 정서적 우울감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지역 유형별로 인식의 차이를 보이며 연구가설 1-2(개인 내/대인 간 구조적 저해요인이 지역 유형별로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것이다)를 지지하였다. 첫째, 개인 내의 저해요인 중 경제적 측면에서 수입감소에 대한 걱정( $p=.016$ )은 도농복합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 $2.67 \pm .87$ )이 도시지역( $2.87 \pm .87$ )과 농어촌지역( $2.82 \pm .96$ )에 거주하는 노인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도농복합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보다 수입감소에 대한 걱정을 전반적으로 더 자주 경험한다는 것이다. 둘째, 대인 간의 저해요인 중 이웃과의 교류 감소에 대한 인식( $p<.001$ )은 도시지역( $2.14 \pm .86$ )이 도농복합지역( $1.80 \pm .88$ )과 농어촌지역( $1.84 \pm .95$ )보다 높게 나타났고, 자녀와의 문제( $p<.001$ )는 도시지역( $1.98 \pm .88$ ), 농어촌지역( $1.85 \pm .89$ ), 그리고 도농복합지역( $1.69 \pm .85$ )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친구 상실에 대한 인식( $p=.006$ )은 도농복합지역( $2.20 \pm .90$ )이 도시지역( $2.42 \pm .98$ )과 농어촌지역( $2.36 \pm .97$ )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다른 지역의 노인들에 비하여 이웃과의 교류 감소와 자녀와의 문제, 그리고 친구의 상실에

대한 인식을 평균적으로 더 자주 경험하며, 도농복합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다른 두 지역 유형에 거주하는 노인들에 비하여 자녀 문제와 친구 상실에 대한 인식에서 가장 적게 경험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조적 저해요인 중 주변 범죄와 안전( $p < .001$ ) 대한 걱정은 도시지역(2.04±.83)이 다른 두 지역(도농복합: 1.80±.92, 농어촌: 1.83±.88) 유형에 비하여 높았으며, 먼 거리의 시설( $p < .001$ )에 대한 인식은 농어촌지역(2.93±.97), 도농복합지역(2.55±1.09), 그리고 도시지역(2.47±1.03)의 순으로 유의미한 높게 나타났다. 여가시설 및 건축물 구조의 불편함( $p = .009$ )에 대한 인식은 농어촌 지역(2.75±.88)이 다른 두 지역 유형(도시: 2.55±.90, 도농복합: 2.53±.94)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도시지역 거주 노인들이 다른 두 지역 유형에 거주하는 노인들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집 주변의 범죄와 안전문제의 걱정을 더 자주 경험하지만, 농어촌지역 거주 노인들은 여가복지 시설 이용에 있어서 다른 두 지역 유형에 거주하는 노인들보다 거리적 접근성의 어려움과 시설 건축물의 불편함에 평균적으로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표 2. 노인의 여가복지시설 이용 저해 요인 변수들의 기술통계

(N=1060명)

변인		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농어촌지역	p-value
		(n=572)	(n=248)	(n=240)	
		M(SD)	M(SD)	M(SD)	
개인 내의 저해요인	신체(보행 어려움)	2.46(1.05)	2.36(1.06)	2.31(1.08)	.137
	심리(우울감)	2.32(0.91)	2.41(0.96)	2.27(0.92)	.234
	경제(수입감소 걱정)*	2.87(0.87)	2.67(0.87)	2.82(0.96)	.014
대인 간의 저해요인	아웃과 교류 감소***	2.14(0.86)	1.80(0.88)	1.84(0.95)	<.001
	자녀 문제***	1.98(0.88)	1.69(0.85)	1.85(0.89)	<.001
	친구 상실**	2.42(0.98)	2.20(0.90)	2.36(0.97)	.007
구조적인 저해요인	주변 범죄/안전**	2.04(0.83)	1.80(0.92)	1.83(0.88)	.004
	먼 거리의 시설***	2.47(1.03)	2.55(1.09)	2.93(0.97)	<.001
	불편한 시설**	2.55(0.90)	2.53(0.94)	2.75(0.88)	.009

\*  $p < .05$ , \*\*  $p < .01$ , \*\*\*  $p < .001$

### 3. 노인 여가복지시설 이용과 저해 요인들 간의 상관 관계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노인 여가복지시설 이용과 독립변수인 저해요인들과의 상관관



계는 <표 3>과 같다. 이변량 상관계수의 값에서 심리 정서적 우울감, 자녀와의 문제, 그리고 친구 상실의 문제를 제외한 모든 독립변수는 노인 여가복지시설 이용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다. 하지만, 그 관계의 강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노인들의 여가복지시설 이용과 수입감소 걱정, 이웃과 교류 감소, 주변 범죄 및 안전, 먼 거리의 시설, 그리고 불편한 시설 사이에 약한 음의 상관관계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낮은 수준의 상관관계는 측정 도구의 낮은 신뢰도 문제, 표본집단의 높은 동질성, 그리고 질문에 대한 제한된 응답 범위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각 수준 내(개인 내/대인 간/구조적)에서의 저해요인들 간에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교란 효과(confounding effects)가 발생할 수 있고, 이와 더불어 많은 표본 수는 이론적 모델에 입각하여 선정된 저해요인 변수가 종속변수인 여가복지시설 이용을 설명하는 회귀분석에서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표 3. 여가복지시설 이용과 저해 요인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N=1060명)

	여가복지 시설이용	개인 내의 저해요인			대인 간의 저해요인			구조적 저해요인		
		[1]	[2]	[3]	[4]	[5]	[6]	[7]	[8]	[9]
[1]신체(보행 어려움)	.06*	-								
[2]심리(우울감)	-.02	.36***	-							
[3]경제수입감소 걱정	-.08**	.16***	.26***	-						
[4]이웃과 교류 감소	-.10**	.34***	.42***	.24***	-					
[5]자녀 문제	-.04	.27***	.36***	.27***	.42***	-				
[6]친구 상실	.02	.27***	.27***	.17***	.36***	.39***	-			
[7]주변 범죄안전	-.10**	.36***	.38***	.24***	.59***	.41***	.32***	-		
[8]먼 거리의 시설	-.13***	.08**	.12***	.08**	.15***	.13***	.08*	.13***	-	
[9]불편한 시설	-.11***	.08**	.11**	.01	.05	.05	-.04	.12***	.27***	-

\*  $p < .05$ , \*\*  $p < .01$ , \*\*\*  $p < .001$

#### 4. 대도시지역 노인의 여가복지시설 이용 저해 요인

지역 유형별로 거주하는 노인들의 여가복지 시설의 이용과 저해 요인 인식에 차이를 확인한 후, 본 연구는 각 지역 유형별 노인들의 여가복지 시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위계서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가설2-1에서와 같이 대도시 거주 노인들의 여가복지시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저해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모델1은 개인 내의 저해요인을 포함하며, 노인들의 여가복지 시설 이용에 대하여 2.3% 설명력( $R^2$ )을 가진다. 보행의 어려움( $B=.18, p=.018$ )과 수입 감소의 걱정( $B=-.17, p=.050$ )이 여가복지시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에서 대인 간의 저해요인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설명력은 4.0%로 증가하였고, 여가복지시설 이용에 이웃과 교류 감소( $B=-.27, p=.005$ )가 새롭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3에서는 구조적 저해요인을 추가로 투입하였고, 그 결과 설명력은 9.1%로 증가하였다. 수입감소 걱정과 이웃과 교류 감소의 영향이 사라졌으나, 먼 거리의 시설( $B=-.29, p<.001$ )과 불편한 시설( $B=-.18, p=.029$ )이 여가복지시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저해요인으로 새롭게 등장했다. 마지막으로, 모델4에서는 인구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저해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통제 변인들이 추가 투입되었다. 설명력은 16.7%로 크게 증가하였고, 통제 변인들 중 나이( $B=.06, p<.001$ )와 월소득( $B=-.11, p=.019$ )이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다. 한편, 보행 어려움의 영향은 사라졌으나, 먼 거리의 시설과 불편한 시설이 여가복지시설 이용에 꾸준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모델에서 도시노인들은 시설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시설 건축물이 이용에 불편할수록 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확률이 높으며, 이와 더불어 나이가 많을수록 여가복지시설의 이용 확률이 높으나, 월소득이 높을수록 이용 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대도시 지역 거주 노인들의 여가복지시설 이용 저해 요인

(n=572명)

변인	여가복지시설 이용							
	모델 1		모델2		모델3		모델4	
	B	SE	B	SE	B	SE	B	SE
개인 내의 저해요인								
신체(보행 어려움)	.18*	.07	.18*	.08	.21**	.08	-.01	.08
심리(우울감)	-.17	.09	-.12	.09	-.07	.09	-.03	.09
경제(수입감소 걱정)	-.17*	.09	-.16	.09	-.09	.09	-.04	.09

변인	여가복지시설 이용							
	모델 1		모델2		모델3		모델4	
	B	SE	B	SE	B	SE	B	SE
대인 간의 저해요인								
이웃과 교류 감소			-.27**	.10	-.16	.11	-.13	.11
자녀 문제			.05	.10	.09	.10	.06	.09
친구 상실			.13	.09	.13	.09	.09	.08
구조적 저해요인								
주변 범죄·안전					-.19	.11	-.12	.11
먼 거리의 시설					-.29***	.08	-.25**	.08
불편한 시설					-.18*	.08	-.14	.08
통제 변인								
성별							.11	.15
나이							.06***	.01
결혼형태							.21	.16
학력(고졸 이상)							.06	.07
월소득							-.11*	.04
$R^2$		2.3%		4.0%		9.1%		16.5%
$F(p)$		3.99(.008)		3.53(.002)		5.68(<.001)		7.18(<.001)
Adjusted $R^2$		.017		.028		.075		6.142

\*  $p < .05$ , \*\*  $p < .01$ , \*\*\*  $p < .001$

## 5. 도농복합지역 노인의 여가복지시설 이용 저해 요인

연구가설2-2에서와 같이 도농복합지역 거주 노인들의 여가복지시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저해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모델1은 개인 내의 저해요인을 포함하며, 노인들의 여가복지시설 이용에 대하여 2.8% 설명력( $R^2$ )을 가진다. 우울감( $B=-.26$ ,  $p=.041$ )이 여가복지시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에서는 대인 간의 저해요인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설명력은 6.2%로 증가하였고, 여가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우울감의 효과는 사라졌으나, 이웃과 교류 감소( $B=-.45$ ,  $p=.006$ )가 새롭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3에서는 구조적 저해요인을 추가로 투입하였고, 그 결과 설명력은 13.7%로 증가하였다. 이웃과 교류 감소의 영향이 사라졌으나,

불편한 시설( $B=-.37, p=.006$ )이 여가복지시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저해요인으로 새롭게 등장했다. 마지막으로, 모델4에서는 인구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저해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통제 변인들이 추가 투입되었다. 설명력은 22.0%로 크게 증가하였고, 통제 변인들 중 성별( $B=.62, p=.012$ )과 나이( $B=.06, p=.001$ )가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다. 불편한 시설이 여가복지시설 이용에 꾸준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모델에서 도농복합지역의 거주 노인들은 시설 건축물이 이용에 불편할수록 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확률이 높으며, 이와 더불어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여가복지시설의 이용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도농복합지역 거주 노인들의 여가복지시설 이용 저해 요인

(n=248명)

변인	여가복지시설 이용							
	모델 1		모델2		모델3		모델4	
	B	SE	B	SE	B	SE	B	SE
개인 내의 저해요인								
신체(보행 어려움)	-.01	.11	.06	.12	.11	.11	-.13	.12
심리(우울감)	-.26*	.13	-.18	.15	-.15	.14	-.16	.14
경제(수입감소 걱정)	-.11	.14	-.12	.14	-.16	.13	-.12	.13
대인 간의 저해요인								
이웃과 교류 감소			-.45**	.16	-.23	.17	-.20	.17
자녀 문제			.15	.16	.28	.15	.21	.15
친구 상실			.15	.14	.05	.14	.01	.13
구조적 저해요인								
주변 범죄/안전					-.26	.14	-.23	.14
먼 거리의 시설					-.19	.11	-.15	.11
불편한 시설					-.37**	.13	-.26*	.13
통제 변인								
성별							.62*	.25
나이							.06**	.02
결혼형태							-.01	.25
학력(고졸 이상)							-.10	.17
월소득							-.01	.11

변인	여가복지시설 이용							
	모델 1		모델2		모델3		모델4	
	B	SE	B	SE	B	SE	B	SE
$R^2$	2.8%		6.2%		13.7%		21.9%	
$F(p)$	2.27(.081)		2.56(.020)		4.07(<.001)		4.56(<.001)	
Adjusted $R^2$	.016		.038		.103		.170	

\*  $p < .05$ , \*\*  $p < .01$ , \*\*\*  $p < .001$

## 6. 농어촌지역 노인의 여가복지시설 이용 저해 요인

연구가설2-3에서와 같이 농어촌지역 거주 노인들의 여가복지시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저해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모델1은 개인 내의 저해요인을 포함하며, 노인들의 여가복지시설 이용에 대하여 7.2% 설명력( $R^2$ )을 가진다. 보행 어려움( $B=.23, p=.033$ )과 우울감( $B=.30, p=.017$ )이 여가복지시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에서는 대인 간의 저해요인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설명력은 9.1%로 증가하였고, 여가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보행 어려움과 우울감의 영향이 유지된 채, 자녀 문제( $B=-.28, p=.036$ )가 새롭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3에서는 구조적 저해요인을 추가로 투입하였고, 그 결과 설명력은 11.0%로 증가하였다. 마찬가지로 보행 어려움, 우울감, 자녀 문제의 영향이 그대로 유지된 채, 먼 거리의 시설( $B=.24, p=.041$ )이 여가복지시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새롭게 등장했다. 마지막으로, 모델4에서는 인구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저해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통제 변인들이 추가 투입되었다. 설명력은 24.6%로 크게 증가 하였고, 통제 변인들 중 성별( $B=.65, p=.005$ )과 나이( $B=.09, p<.001$ )가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다. 한편, 보행 어려움의 영향은 사라지고, 전 단계들에서의 서로 다른 영향요인들 중 우울감만이 꾸준히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모델에서 농어촌지역의 거주 노인들은 우울감이 높을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여가복지시설 이용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6. 농어촌지역 거주 노인들의 여가복지시설 이용 저해 요인

(n=240명)

변인	여가복지시설 이용							
	모델 1		모델2		모델3		모델4	
	B	SE	B	SE	B	SE	B	SE
개인 내의 저해요인								
신체(보행 어려움)	.23*	.11	.28*	.11	.26*	.11	-.10	.12
심리(우울감)	.30*	.13	.30*	.14	.29*	.14	.31*	.13
경제(수입감소 걱정)	-.19	.11	-.17	.12	-.13	.12	-.05	.11
대인 간의 저해요인								
이웃과 교류 감소			.01	.13	-.02	.13	-.10	.13
자녀 문제			-.28*	.13	-.28*	.13	-.22	.12
친구 상실			.10	.12	.12	.12	.06	.11
구조적 저해요인								
주변 범죄/안전					.09	.15	.14	.14
먼 거리의 시설					.24*	.12	.18	.10
불편한 시설					-.04	.12	-.02	.12
통제 변인								
성별							.65**	.23
나이							.09***	.02
결혼형태							-.43	.24
학력(고졸 이상)							-.16	.21
월소득							-.04	.11
R <sup>2</sup>		7.2%		9.1%		11.0%		24.3%
F(p)		5.93(.001)		3.75(.001)		3.05(.002)		5.06(<.001)
Adjusted R <sup>2</sup>		.060		.066		.074		.198

\*  $p < .05$ , \*\*  $p < .01$ , \*\*\*  $p < .001$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들의 효과적인 여가활동 참여를 위해 지역에 위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집필진은 지역특성에 따라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의 특성 또한 다르며, 따라서 지역에서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 장려와 관련된 정책과 서비스 방향도 달라져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김순은, 최지민, 황선영, 2016). 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그리고 농어촌지역 간의 여가복지시설 이용, 저해 요인 인식, 그리고 시설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저해 요인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전국단위의 인구비례 할당 표집 방법을 이용하여 1060명의 노인으로부터 데이터를 획득하였고, 여가 참여의 위계모형(Jackson, Crawford & Godbey, 1993)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연구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현황은 지역 유형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주 1회 이상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도시지역(66%)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도농복합지역(63%)이었고, 농어촌지역(60%)이 가장 낮았다. 흥미롭게도, 도농복합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이용하지 않는 노인과 주 5회 이상 이용하는 노인들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대조적인 형태를 보이며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중간 정도의 전반적 이용률을 보였다. 본 조사에서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률은 2014년 노인실태조사보고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의 결과보다 약 2배 가깝게 높게 나온 수치이지만, 박경순, 박영란, 그리고 염유식(2015)의 연구보다는 다소 낮게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농어촌지역에 거주 노인들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활발하게 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의 해석은 최근 발표된 고령자통계(2015, p.18)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즉, 농가 비율이 높은 읍면지역 거주 노인은 농가 비율이 낮은 동지역 노인들보다 하루 중 수입을 위한 노동시간은 더 많이 하고 여가활동은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인들의 여가활동 시간의 활용에 있어 지역 유형별 차이는 전국 통계조사에서와 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좁혀지고 있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여가복지시설 이용이 증가 할 것으로 전망 되며 관련 대응책이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세 지역의 유형별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의 특성 차이는 대인 간구조적 요인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먼저 대인 간의 저해요인과 관련하여 이웃과의 소통 단절, 친구의 상실, 및 자녀와의 갈등 문제 등 주변인과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더 자주 겪게 됨을 의미한다. 나이가 많을수록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노년기의 사회적 관계망은 생활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장수지, 2010; 최지민, 황선영, 김순은, 2016). 따라서, 여가활동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인 사교·친목 교류의 장소로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이 도시지역에서 그 본연의 역할이 더 기대될 것이다. 구조적 저해요인에 있어서는 도시지역 거주 노인들이 집 주변 범죄와 안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십여 년 전부터 지역사회자본 형성의 긍정적 측면들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이 다수 발표되어 오고 있다. 지역사회의 연대와 결속은 범죄와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김상원, 2012). 지역사회의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자본은 중요하며(이민홍, 김순은, 2015), 지역사회자본 형성에 있어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역할이 기대되는 이유이다. 또한 예상했던 바와 같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지역 내의 노인여가복지시설과의 거리적 접근이 어려운 문제와 구조물의 불편함에 대하여 인식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의 노인여가시설과 기관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황수영, 서성용, 김성혁, 2010), 이러한 문제는 거리적 접근성에서 불리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서 더욱 심각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또한 농어촌지역의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문제에 내몰려 있고, 이러한 재정 어려움의 문제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대표되는 노인여가복지사업에서 시설물의 보수 관리에 도시지역에 비하여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고 노인 여가활동에서 불평등을 야기하는 악순환이 계속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회귀분석결과를 요약한 <표 7>에서와 같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여가복지시설 이용의 저해요인으로 구조적 요인의 중요성이 밝혀졌다. 이는 여가참여의 위계모형(Jackson, Crawford, & Godbey, 1993)이 도시지역에서의 노인 여가복지시설 이용에 가장 잘 적용됨을 의미한다. 즉, 개인 내/대인 간의 저해요인이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만 거리적 접근성과 시설물에 대한 이용 편리성 등의 구조적 저해요인이 더 큰 영향력이 발휘 해 개인 내 혹은 대인 간의 저해요인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먼 거리의 시설과 불편한 시설물에 대한 심각성의 인식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여가복지시설 이용의 중요한 저해요인으로 밝혀졌다. 도시지역의 경우, 도농복합지역이나 농어촌 지역보다 문화 및 여가시설이 다양하고, 이는 노인들이 여가복지시설 이용에 있어서 거리적 접근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시설의 현대화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에 있어서 농어촌지역에 비하여 시설물의 질적 변화를 더 강하게 요구하기 때문일 수 있다(이환범, 이수창, 임중환, 2005).



구조적 요인 외에도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월소득이 낮을 수록 여가복지시설 이용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도시지역에서는 다양한 문화 및 여가시설로 인하여 소득이 높은 노인들이 질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을 수 있다. 이는 노인이 여가활동의 참여에 있어서 계층화 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의미한다. (남은영, 최유정, 2008; 한경혜, 윤성은, 2009). 또한 도시지역에 대한 연구 결과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주로 저소득층과 고령층이 이용할 확률이 높고, 따라서, 향후 도시지역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이나 재설계 시 이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 한다.

표 7. 지역 유형별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농어촌지역
개인 내의 저해요인			우울감(+)
대인 간의 저해요인			
구조적 저해요인	먼 거리의 시설(-) 불편한 시설(-)	불편한 시설(-) 성별(여성)	성별(여성)
	나이(+)	나이(+)	나이(+)
통제 변인	월소득(-)		

넷째,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여가복지시설 이용의 저해요인으로 우울감이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분석되었던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과 도농복합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이용 패턴에 대한 연구결과와도 상반 된다. 즉, 노인의 우울증이 높을수록 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확률이 높게 나타나지만(박경순, 박영란, 염유식, 2015),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지역의 노인들에게서는 우울감이 높을수록 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동거가족의 형태에서 독거노인 단독세대와 노인부부세대가 급증하는 농어촌의 현실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즉, 가족 내에서 소통 할 수 있는 구성원이 부족하고, 이로 인한 고립감과 우울감이 높은 농어촌 지역의 노인일수록 경로당과 같은 친목 공간을 찾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남성보다 여성 노인일수록 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할 확률이 높다는 결과는 여성 노인이 경로당을 통한 사교활동과 같은 정적인 여가활동을 선호한다는 선행 연구

와 일치한다(정경희 등, 2014).

다섯째, 도농복합지역의 노인들은 불편한 시설물일수록 여가복지시설 이용을 꺼리나, 여성일수록,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여가복지시설 이용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시와 농촌지역 노인들의 여가복지시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부분적으로 결합하여 나타내는 듯하게 보인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1995년 이후 대대적인 도농통합으로 도농복합도시가 탄생하였으나 도시와 농촌이 화학적으로 통합되었다기보다는 물리적인 결합으로 잔존되어 도시와 농촌의 특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 할 것이다. 즉, 도농복합도시는 도시와 농촌의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이 도농복합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여가복지시설 이용 요인에도 반영되어 나타나 시설건축물의 불편성과 나이는 도시지역과 도농복합지역에서 동일한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성별과 나이는 도농복합지역과 농어촌 지역에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유형별 차이를 종합 비교해 볼 때, 흥미로운 사실은 나이의 효과는 세 지역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즉, 나이가 많을수록 도시, 도농복합, 그리고 농어촌지역 모두에서 노인들이 여가복지시설 이용확률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박경순, 박영란, 염유식, 2015; 한경혜, 윤성은, 2009). 2015고령자통계(통계청, 2015)에 따르면, 고령자의 경우, 나이가 많아질수록 여가 시간이 증가하며, 이 여가 시간 중에서도 종교, 문화, 스포츠를 위한 여가 시간보다 교제활동과 미디어 이용시간이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일반 성인일 경우 나이가 젊을수록 여가활동참여지수가 높아지며(남은영, 최유정, 2008), 도시노인일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참여활동참여도(정적 여가활동뿐 아니라 체육여가, 여행, 문화예술, 사회 참여활동 등 포함)가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와 사뭇 대치되어 보이기도 한다(허준수, 2002). 하지만,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즉, 나이가 많은 노인일수록, 양적인 측면에서 여가활동을 위한 시간은 늘어나지만 주로 정적인 활동이 중심이 되는 경로당과 같은 여가복지시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앞으로 지역사회의 특성과 무관하게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노인의 수가 증가하면 시설의 수요가 증가하게 됨을 의미하고 동시에 미래 노인세대가 될 성인 혹은 초기 노인세대들의 다양한 여가활동 욕구를 수용하기에 현재의 여가복지시설의 다양화와 개별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는 횡단연구 서베이에 기초한 결과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조사 대상자 선정에서 인구비례할당 표집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그리고, 설문지의 문항들이 노인들의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수준을 묻는 내용으로 실제 노인들이 처한 현실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론적 모델을 적용하는 데 있어 변수 선정의 제한으로 설명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는 노인여가복지가 나아가야 할 중요한 정책적·실천적·연구적 함의를 제시한다.

정책적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확충과 관련 해 지역적 특수성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시지역에서는 거리적 접근성과 시설물의 편리/안전성을 우선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여가복지시설의 양적 확충과 질적 활용의 내실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새로운 시설의 건립도 필요하지만, 거리상의 접근성과 시설물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의 공공시설물과 기관을 임대 사용하거나 바우처 방식 등을 적극 활용하여 민간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도 이러한 구조적 저해요인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또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수와 종류에 있어서 지역적 편차가 크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윤경, 정경희, 오영희, 염주희, 김향아, 2012). 즉, 문화여가시설이 부족한 농어촌과 도농복합지역에 다양한 노인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다각도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정적인 활동 중심의 경로당 수를 농어촌과 도농복합지역에 늘리기보다 노인 정신 상담과 정보화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물(노인교실, 노인복지관, 노인 휴게시설 등) 혹은 건강, 여가, 문화를 동시에 해소 할 수 있는 시니어컴플렉스와 같은 복합공간의 확충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의 복지기초구조개혁을 통한 복지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 특성별 맞춤형 프로그램과 개별화된 다양한 노인 욕구를 해소시켜 줄 스태프 훈련을 위해 실천적 함의를 제공한다. 단기적 관점에서 도시지역에서는 기존 시설에 저소득 노인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노후설계와 같은 교양 프로그램을 확대 개설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고, 농어촌지역에서는 노인들의 우울증 상담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의 배치나 소외와 우울감 등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이 시급 할 것이다. 이러한 지역사회와 방문 노인들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기 위해 노인여가프로그램 전문가 교육 계획이 구체적으로 논의 될 필요가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초기 노인층과 중위 소득 이상의 노인들을 유인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혹은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의 사회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장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노인의 여가복지시설 이용의 미래 연구에 관한 함의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지역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232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단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일은 지역의 구체적 특성을 모두 살펴보기에 분명한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미래의 연구를 위해서는 충분한 표본을 가지고 지역을 좀 더 세분화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이동이 불편한 노인의 여가활동을 위해서는 시설이 접근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기에 지역정보체계(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기법을 접목하여 지역별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입지를 모색하여 보는 연구가 수행 될 필요가 있다.

홍석호는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를, 미국 University of Maryland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고령사회와 사회자본 연구센터에서 전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노인의 정신보건, 다문화, 호스피스, 죽음의 질이며, 현재 노인 문제와 사회자본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다.  
(E-mail: jamjang3@gmail.com)

김순은은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를, 미국 Kent State University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정보통신연구소장, 그리고 한국행정연구소 겸무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지방정부 및 비교행정, 행정개혁, 정부관계론이며, 현재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해결 열쇠를 '공동체와 '사회자본'으로 보고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  
(E-mail: sekim0313@snu.ac.kr)

## 참고문헌

- 강주희, 윤순덕. (2007). 노인복지시설 유형별 지역적 편차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 과학회지*, 18(3), pp.369-378.
- 김상원. (2012). 사회적 자본과 범죄: 사회적 자본이 폭력범죄에 미치는 영향. *한국치안행정논집*, 9(1), pp.1-25.
- 김숙향, 황경란. (2016). 노인의 사회적 배제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적응유연성의 조절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1), pp.263-273.
- 김순은, 이민홍. (2015). 한국노인이 경험하는 문제(어려움)는 무엇인가?: 포괄적 노인문 제척도 개발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5(2), pp.1-22.
- 김순은, 최지민, 황선영. (2016). 우리나라 고령자와 고령화 사회의 지역별 특성. 서울: 조명 문화사.
- 김춘중. (2013). 노인의 신체활동 참여 제약요인들의 우선순위 분석. *한국노년학*, 33, pp.563-580.
- 김희년, 정미숙. (2004). 지역사회복지시설 이용노인들의 여가활용실태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6, pp.263-285.
- 박경순, 박영란, 염유식. (2015). 어떤 농촌노인이 경로당에 가지 않는가?. *사회복지정책*, 42(2), pp.163-184.
- 박경숙. (2003). 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실태와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사회 복지학*, 55, pp.283-307.
- 박기범, 하형주, 신영균. (2009). 노인체육 편: 노인여가시설 이용자의 서비스질 만족요인.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7(1), pp.829-838.
- 박미석, 이유리. (2003). 한국 노인의 여가활동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1), pp.37-49.
- 박종천. (2011). 고령사회 노인여가활동의 지리적 특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7(4), pp.395-415.
- 성태제. (2007). SPSS/AMOS를 이용한 알기 쉬운 통계분석. 서울: 학지사.
- 심미경, 박정모. (2015). 경로당 이용 노인과 비이용 노인의 성공적 노화 영향요인 비교연구. *노인간호학회지*, 17(3), pp.196-206.
- 안중철, 임왕규. (2014). 농촌 노인의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4), pp.189-210.

- 윤인진, 김상운. (2005). 여가활동의 사회집단별 차이와 불평등. 사회과학연구, 13(2), pp.162-202.
- 이만홍, 고정은. (2015). 사회자본이 노인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7(3), pp.85-110.
- 이석훈, 송강영, 김재운. (2008). 노인여가활동 참여현황 및 활성화 방안 탐색.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8(3), pp.234-244.
- 이선자. (2002). 노인여가활동과 노인의 삶의 질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 이소정. (2010). 노인 자살의 사회경제적 원인 분석. 사회보장연구, 26(4), pp.1-19.
- 이윤경, 정경희, 오영희, 염주희, 김향아. (2012). 노인여가복지서비스 발전방안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윤경. (2013).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의 운영현황 및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98, pp.56-66.
- 이환범, 이수창, 임중환. (2005). 지역사회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국행정학보, 39(3), pp.137-158.
- 임정기. (2009). 재가노인요양서비스 종류별 이용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16(1), pp.193-234.
- 장명숙, 박경숙. (2012).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보건사회연구, 32(2), pp.232-266.
- 장수지. (2010). 노년기 사회적 관계망의 구조적, 기능적 측면과 주관적 삶의 질의 관계. 사회과학연구, 26(1), pp.75-100.
- 최지민, 황선여, 김순은. (2016). 사회적 관계망과 고령자의 문제: 성별과 사회관계망 간 상호작용의 정책적 활용. 정책분석학회보, 25(4), pp.83-114.
- 통계청. (2015). 2015 고령자 통계. 대전: 통계청.
- 한경혜, 윤성은. (2009). 도시노인의 여가공간과 생활세계.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0(1), pp.103-121.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 허준수. (2002). 도시노인의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2, pp.227-247.
- 황수영, 서성용, 김성혁. (2010). 노년층의 여가활동 참여유형과 여가만족도 및 인지된

- 자유감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22(6), pp.647-667.
- 황남희. (2014). 한국 노년층의 여가활동 유형화 및 영향요인 분석. *보건사회연구*, 34(2), pp.37-69.
- Baert, V., Gorus, E., Mets, T., Geerts, C., & Bautmans, I. (2011). Motivators and barriers for physical activity in the oldest old: a systematic review. *Ageing research reviews*, 10(4), pp.464-474.
- Cardenas, D., Henderson, K. A., & Wilson, B. E. (2009). Physical activity and senior games participation: Benefits, constraints, and behaviors. *Journal of aging and physical activity*, 17(2), pp.135-153.
- Crawford, D. W., & Godbey, G. (1987). Reconceptualizing barriers to family leisure. *Leisure sciences*, 9(2), pp.119-127.
- Crawford, D. W., Jackson, E. L., & Godbey, G. (1991). A hierarchical model of leisure constraints. *Leisure sciences*, 13(4), pp.309-320.
- HelpAge International. (2015). *Global AgeWatch Index 2015: Insight report*. London: HelpAge International.
- Jackson, E. L., Crawford, D. W., & Godbey, G. (1993). Negotiation of leisure constraints. *Leisure sciences*, 15(1), pp.1-11.
- Jeong, G. H., Oh, Y. H., Lee, Y. G., Sohn, C. G., Park, B. M., & Lee, S. Y. (2012). *A research on the status of the elderly: 2011 living profiles and welfare service needs of older persons*.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Kim, E. K., Shin, Y. G., Jo, E. J., Moon, D. S., Park, K. M., Kim, E. K. et al. (2015). Comprehensive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of Elders Utilizing Senior Welfare Centers.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12(1), pp.50-59.
- McGuire, F. A., Dottavio, D., & O'Leary, J. T. (1986). Constraints to participation in outdoor recreation across the life span: A nationwide study of limitors and prohibitors. *The Gerontologist*, 26(5), pp.538-544.
- Mirsafian, H. (2014). *Constraints to participation in physical activity and sport: a comparative study between Hungarian and Iranian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Semmelweis University).

## **Constraints to Participation in Senior Welfare Centers:** Focusing on the Difference of Regional Types

**Hong, Seokho**  
(Seoul National University)

**Kim, Soon Eun**  
(Seoul National University)

---

This study analyses factors that prevent use of leisure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among the elderly in three geographical types and compared the identified factors. Study sample is chosen based on stratified sampling method based on population and data from the sample were collected by one to one interview. Data from 1060 individuals whose age was 65 or older and reside in Korea were used for analyse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were used. Intra-person factors, interpersonal factors, structural factors, and controlling factors were entered step by step. There were differences in factors that prevent use of leisure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among the elderly depending on the geographical types. The elderly who reside in urban areas are more likely to use leisure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when they are older and live closer to the facilities are, and monthly income is lower. For the elderly who reside in complex areas with urban and rural characteristics, when facilities are more convenient and when they are older and female, the elderly were more likely to use leisure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The elderly who reside in rural areas tend to use leisure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when they are more depressive, female, or older.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different approaches depending on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are necessary.

---

**Keywords:** Elderly, Senior Welfare Center, Regional Type, Hierarchical Model of Leisure Constraints